

학교재갤러리·싼상당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展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싼상당대미술관에 전시 중인 이우환의 설치작품 '관계항'. 사물의 관계를 뒤집어 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백남준의 비디오아트와 함께 가장 크게 조명받고 있다.

中 예향 항저우 'K아트'에 빠지다

백남준·이우환 등 12명 대표작 30여점 전시
서양화·사진·영상·설치 미술 등 매체 다양

기획자 "한국 현대미술 다양성과 깊이 전할 것"
중전문가 "우리 미술계에 신선한 자극 될 것"

"굉장해요. 전통에 치우친 중국 현대미술과 달리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쉬 윈윈 중국 상하이데일리 기자)

지난달 29일 중국 고도(古都)이자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杭州).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저장성 최초의 공인 사립미술관인 '싼상(三尚)당대미술관'은 100여명의 현지 미술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왁자지껄했다. 입구에 들어서니 돌과 철판으로 이뤄진 이우환(78)의 대표작인 '관계항'이 보였다. 반대편으로 발길을 돌리니 백남준의 초기 텔레비전 설치작품 5점과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를 형상화한 로봇 1점이 자리했다.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였던 이웅백(48)의 '브로큰 미러'(Broken Mirror)도 눈길을 끌었다. 어두운 복도에 들어서자 종소리와 함께 굉음을 내며 우리가 산산조각 나는 착시 현상이 일었다.

미술관 구석구석에는 김아타(58), 유근택(49), 이세현(47), 홍경택(46) 등의 중견 작가와 오윤석(42), 권순관(41), 김기라(40), 박지혜(33), 장종완(31) 등 청년 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 12명의 대표 작품 30여점이 배치됐다. 동서양 회화와 사진, 영상, 설치 등 매체를 가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29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는 전시는 서울의 학교재갤러리와 싼상당대미술관이 주관한 '한국현대미술-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전이다.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서 '중국통'으로 불리는 윤재갑 상하이 하오아트뮤지엄 관장이 기획했다. 윤 관장은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함과 깊이를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설치미술가인 진양평 중국미술학



지난달 29일 싼상당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미술-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전 개막식(위). 천쯔징 관장이 한국의 참여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미술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아래).

원 교수는 "중국 본토에서 열리는, 유례없는 대규모의 한국 현대미술전"이라고 평했다. 중국미술전문 월간지 '예술시대'의 쉬커 부주관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단편적으로 접한 작품들과 달리 다채로운 한국 미술의 색채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왕둥린 중국미술학원 서예과 원장과 관화이빈 설치미술과 교수는 "중국의 작가, 기획자, 컬렉터 등 우리 미술계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우환, 이웅백, 김아타 등을 제외한 작가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작품 설명에 나섰다.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국내 작가 중 최고가 기록을 세운 홍경택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치솟는 연필을 그린 회화작품을, 실천주의 작가 김기라는 냉면을 소재로 남북간 '이념의 벽'을 허물려는 노력을 담은 영상작품을 각각 내놓았다. "서울 곳곳에 함흥냉면이란 빨간 깃발이 펄럭이지만 누구도 이념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다"는 김 작가의 설명에 중국 취재진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유근택은 전통 수묵화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현대사회의 문제를 예리하게 담은 '어떤 만찬'이란 회화를 내놓았다. 그는 "누군가 질펀하게 먹어치운 식탁 위에 남겨진 포도주와 과일 등이 '6자 회담' 등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국 런던대 골드스미스칼리지 출신의 박지혜 작가는 인간의 불안정성을 다룬 3분 49초짜리 프로젝트 영상작품을, 권순관은 성형수술 전후의 모습을 모두 담은 초라한 여성의 육체를 사진작품으로 선보였다. 참여 작가 중 막내인 장종완은 종(種)에 관계없이 동물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 등을 그린 '세드 로맨스'(Sad Romance)를 벽에 걸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시가 왜 항저우에서 열렸을까. 천쯔징 싼상당대미술관장은 "현재 항저우 저장미술관에서는 한국의 '국전'과 비슷한 5년 주기의 '전국미전'이 열리고 있어 중국 미술계의 관심이 온통 항저우에 쏠려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항저우는 남송시대 수도로 '남송화' 등 중국 전통미술이 스민 고도이면서 '중국 현대미술의 발원지'로 불린다.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과 함께 중국 양대 미술교육기관인 중국미술학원이 자리 잡고 있다. 1985년 중국 현대미술운동인 '85미술신조류'가 태동한 곳이며 황융핑, 차이귀창 등 중국 현대미술의 주요 작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우찬규 학교재갤러리 대표는 "중국 작가들의 급성장에 비해 한국 작가들의 입지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한국 작가와 미술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곳으로 향후 그룹전은 물론 좋은 작가의 개인전을 열어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을 선보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항저우(중국) 오상도 기자 sdo@seoul.co.kr